



Slow Food
2025. 05

종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모두에게

slow food

LETTER | COLUMN | REPORT | ARK OF TASTE | PEOPLE | CONVIVIUM



평등을 원하는 청년의 팻말 시위

© Amy Elting on Uusplash



슬로푸드 소식을 모아 전하는 '슬로푸드' 섹션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와 「슬로매거진달팽이」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슬로푸드 운동의 현장은 물론 국제슬로푸드협회의 여러 가지 소식과 슬로푸드를 실천하는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아우르며, 매달 다양한 슬로푸드 뉴스, 인물 인터뷰, 활동 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www.slowfood.or.kr 문의 02-737-1665

 Slow Food®

흙수저, 금수저를 넘는 인간 생존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동안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전쟁터 같았던 한국동 거리에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 여전히 경찰버스가 머물고 있긴 하지만, 분명 우리는 위기를 지나 회복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극한의 위기 국면은 일단락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또다시 5년 임기를 완주하지 못한 대통령을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간의 사회적 혼란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국민은 대선을 통해서 새로 선출하게 될 새로운 대통령에게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슬로푸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저로서는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저 계급론이 던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

차별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의 격차는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상징적 언어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자산의 유무를 넘어서, 삶의 기회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버리는 구조적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금수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다양한 사회적 혜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흙수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종 제약과 차별 속에 갇혀, 아무리 노력해도 꿈조차 꾸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마저 사라졌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구조 속에서,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 세대를 짓누르는 절망의 무게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청년 세대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3포 세대 연애·결혼·출산 포기’에서 시작된 포기 선언은, 점차 ‘5포 세대 내 집 마련·인간관계 포기’, ‘7포 세대 꿈과 희망 포기’를 지나 이제는 ‘9포 세대, 즉 외모와 건강까

지 포기하며 자기 존재마저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를 침해받는 문제입니다.

먹거리 불평등,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의 위기

이 불평등은 특히 먹거리에서 절실하게 드러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난한 청년들은 값싸고 영양이 낮은 편의점 간편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이처럼 먹거리 불평등은 단순한 식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기본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먹거리기본법의 필요성과 국가의 책임

우리는 이제 ‘먹거리는 생존이다’라는 명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건강한 먹거리를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협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복지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 건강권, 평등권의 실현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경제 성장이나 정치 개혁만이 아니라, 불평등 해소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더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과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흙수저도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누구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 출발점이 바로 먹거리의 평등한 보장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

완연한 봄의 길목에서...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장형언**에게



© Daria Strategy on Unsplash

가공식품(간장, 조미료 등)이 나열된 마트 진열장

‘Non-GMO’ 표시를 본 적이 없다면?

글 김종덕(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회장) 사진 Unsplash

GMO 완전표시제를 실행하지 않는 우리나라. GMO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우리 주변 어디까지 침투해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면, 예전에는 직접 키우거나 인근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집에서 조리해 먹었지만, 지금은 식품산업의 다양한 제품의 공급, 1인 가구의 증가, 소비자들의 바쁜 생활, 편리성과 가성비 추구 등을 이유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레토르트 식품, 밀키트, 가공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레토르트 식품, 밀키트, 가공식품의 식재료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식재료 자체가 안전에 취약한 성질이 있는 데다가 가공 음식에는 맛을 내기 위해 각종 조미료, 설탕, 고과당 시럽 등이 들어 있습니다. 맛을 표준화하기 위해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는 천연염 대신에 정제염을 사용하고, 원가를 낮추기 위해 천연첨가물 대신 인공 첨가물을 사용합니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이름으로 된 방부제를 사용합니다.

패스트푸드 등 가공식품 식재료에는 GMO 재료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GMO는 자연에서 벗어난 유전자 조작(유전자 변형)을 거친 종자로 생산한 농산물, 수산물인데, 우리나라는 GMO 작물 재배를 허용하지 않기에 우리가 먹는 GMO는 전부 수입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엄청난 양이 수입되어 사료, 가공식품의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GMO 사료로 키운 축산물을 먹고, GMO 콩으로 만든 콩나물, 두부, 간장, 된장을 먹습니다. 많은 가공식품에 GMO가 들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GMO 완전표시제를 실행하지 않아 소비자들만 Non GMO 식품을 찾아 먹을 수 없고, GMO가 들어 있는 식품도 그것이 GMO 식품인지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2년 전 GMO 주키니 호박 종자가 정부의 검역 부실로 유통되어 8년간 우리 밥상에 올랐고, 정부를 믿고 종자를 사서 농사짓던 농가들은 모두 호박을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 사태는 밥상을 오염시키고 농지를 오염시키고 종자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GMO 주키니 호박보다 수십 배나 파급력이 큰 GMO 감자를 수입 승인 중입니다. 이제는 표시되지 않는 GMO 가공식품도 모자라 우리 밭에서 생산한 GMO 감자를 먹게 되는 무서운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등 수많은 단체가 반대 또다시 GMO 감자 수입 안전성 심사 진행?

국내 여러 먹거리단체의 반대와 GMO 감자를 개발한 연구진의 폭로 등으로 중단되었던 GMO 감자 수입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 또다시 많은 이들이 이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GMO 감자는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반대활동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봤다.

글 신민건(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담당) 사진 Unsplash, 신민건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들어오는 수입 감자 제품에서
GMO 감자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유기농을 선택하는 것이다.

GMO란 유전자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변형한 생물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안정성 승인 심사를 거쳤다는 명목으로 6가지 품목을 수입하고, 이는 대부분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즉, 한국에서 GMO 식품은 수입된 식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접하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은 일부 연구용 재배지를 제외하고 공식 GMO 생산 재배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GMO 원재료 수입을 넘어서 지난 2024년 10월부터 GMO 감자 수입 절차가 은밀하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GMO 감자 승인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 감자 안전성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당시 심사한 감자는 미국 ‘J. R. 심플롯(J.R. Simplot)’사에서 개발한 GMO 감자다. 당시 거의 완료된 절차가 어떻게 불발되었을까? GMO 감자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 카이어스 로멘스(Caius Rommens) 박사가 출간한 『판도라의 감자: 최악의 GMO(Pandora's Potatoes: The Worst GMOs)』에 담긴 내용이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감자의 갈변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갈변현상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침묵시켰다. 하나 그 결과로, 보통 감자에 없는 독성이 생겼다”고 말한다. 이러한 참여 과학자의 양심고백과 국내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의 반발로 당시 승인 절차는 중단되었다.

+ GMO 감자 독성물질과 발생하는 증상의 예 by 로멘스 박사

차코닌 말로닐: 두통, 구토, 복통, 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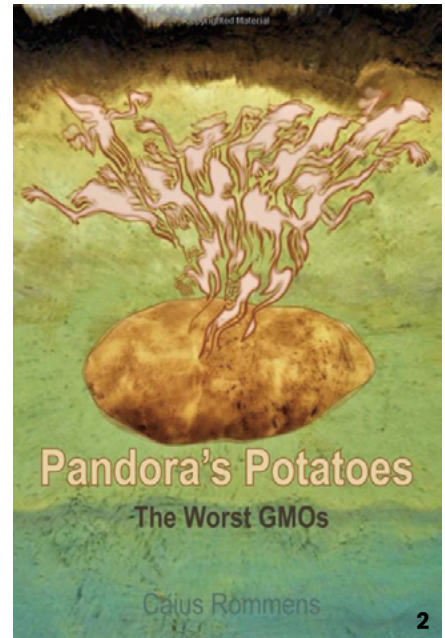
알파-아미노아디페이트: 당뇨, 알츠하이머, 암 등의 질병 요인 생성

티라민: 체내 축적 시 혈관 수축 및 혈압 상승 유발

“몇 가지 감자 유전자를 침묵시킴으로써 흰 감자를 노란색 또는 주황색(항산화 카로티노이드) 감자로 변형시켰고, 감자 유전자를 과발현하여 흰 감자를 보라색(항산화 안토시아닌) 감자로 변형시켰다. 우리는 많은 일을 했지만, 발표된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우리 실험의



1 『Acres USA』
2019년 1월호에 실린
카이어스 로멘스
박사 인터뷰 사진
2 카이어스 로멘스
박사의 『판도라의
감자』 표지 이미지



99%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검은 반점쥐 타박상에 대한 저항성, 감자튀김에 함유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의 축적 감소, 튀김으로 인한 갈변 억제, 역병저항성 등 4가지 GM 특성을 상용화하기로 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특성이 더 파악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by 카이어스 로멘스

그렇다면 GMO 감자는 어떤 종류의 독성 화합물을 생성할까? 카이어스 로멘스 박사는 인터뷰를 통해 “내가 우려하는 잠재적 독소는 알파-아미노아디페이트, 글리코알칼로이드와 관련된 샤코닌-말로닐,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또는 마오이(MAOI)라고 하는 특정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독성이 있는 티라민이 있다”고 말했다.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플로트사에서 만들어진 GMO 감자 3가지 품종에 수입하는 데 필요한 안전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만약 이번 GMO 감자 수입이 승인되고, 기업들이 수입하여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1

02 _____ 국내 GMO 감자 수입이 승인된다면?

LMO(Living Modified Organism) : 살아서 생식, 번식이 가능한 유전자변형 식품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LMO 포함 / 생식, 번식할 수 없는 유전자변형 식품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심사에서는 환경 위해성 심사를 한다. 즉,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기존 환경에 위해를 미치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아무런 위해성 심사 없이 GMO 주키니 호박이 농장에 유포되어 출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이후 GMO 주키니 호박이 아닌 일반 호박 재배 농가는 인건비 보전도 힘들 정도로 완전히 떨어진 가격으로 호박을 팔아야 했다. 특히 감자는 국내 자급률이 높은 작물이다. GMO 주키니 호박 선례가 있는데, 자부심을 품고 감자를 재배하던 농민들에게 GMO 감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만약 GMO 감자 수입이 승인된다면 농가 피해와 국내 감자 수급률 하락 문제만이 아니다. 국내로 들어온다면 주로 냉동감자 형태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한다. 여기에서 GMO 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결합이 된다. GMO 성분이 미량이면 표시 의무 제외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품접객업소는 GMO 감자가 쓰여도 표시할 의무가 없다. 패스트푸드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대는 10대를 포함한 젊은 층이며, 이를 미리 알아챌 방도가 없다. 이는 자라나는 청년 세대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1 생산된 LMO 주키니 호박 2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드는 감자튀김. 원료의 GMO 성분 함유율을 알기 어렵다.

03 우리는 GMO 감자 승인을 반대한다

GMO반대전국행동,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여러 단체와 함께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기자회견 지난 3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GMO반대전국행동·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전국먹거리연대가 함께 ‘GMO 감자 수입 절차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에 소비자를 대표해서 참가한 강말숙 한살림동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GMO 감자 수입승인 시 특히 자녀 세대가 먹거리 안전성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집회 농촌진흥청의 환경 위해성 심사 통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앞에서 GMO 감자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충청권 농민·생협 단체와 전국 GMO 반대운동 단체 등 50여 명이 모였다. GMO 감자의 수입승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면 식약처에 수입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 GMO 감자 수입 반대 성명 온라인 링크
www.slowfood.or.kr/post/성명
 정부는 - gmo - 감자 - 수입 - 승인 - 절차를 - 즉각 - 철회하라



- 1 GMO 감자 승인 반대 의견을 펼치는 국회 기자회견 현장
- 2 식약처 집회 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 3 식약처 정문 앞 각 단체가 모인 집회 현장



유럽연합의 GMO 규제 완화에 대한 국제슬로푸드협회의 대응

한국에서의 GMO 논쟁뿐만 아니라, GMO 식품은 전 세계적인 문제다. 지난해 유럽의회에서 발의한 GMO 규제 완화 건에 관하여 국제슬로푸드협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전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GMO 감자 수입승인을 대응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글 신민건(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담당) 사진 국제슬로푸드협회, Unsplash

지난해 2월 유럽의회는 신규 GMO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에 찬성하였다. 내용으로는 안전 검사 폐지, 표시 규칙 완화와 GMO 표시를 신 유전체(New Genomic Techniques) 기술로의 표기 등이 있다. 규제 완화 이유는 지속 가능한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허점과 구멍이 가득한 제안으로 국제슬로푸드 유럽을 포함한 유럽 사회환경책임과학자네트워크(ENSSER) 소속 과학자들과 독일 연방자연보호청(BFN), 프랑스 국립식품환경산업보건안전청(ANSES)과 같은 공식 기관들의 새로운 GMO에 대한 사례별 안전성 평가, 표시 및 추적 가능성의 필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를 삭제하려 한다. 규제 완화로 인한 재료의 무결성, 고객과 공급자의 선택의 자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식문화에 미칠 영향은 결국 모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실험실에서 생산된 식물 다양성을 하루아침에 자연에 도입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환경, 시민, 농부의 미래를 위한 시간, 평가와 안전에 기초한 예방 원칙을 믿는 것이 적절한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국제슬로푸드조리사동맹’의 저항 행동

“벨기에 요리사들은 투명성과 요리 예술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GMO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슬로푸드는 EU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소비자와 농부의 권리, 요리의 정직성,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 제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GMO 규제 완화 건에 우려한 국제슬로푸드조리사동맹(Slow Food Cooks Alliance) 회원을 포함한 벨기에 요리사들은 벨기에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이 규제 완화 제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하였다.

국제슬로푸드협회의 성명

“슬로푸드는 EU 의사 결정자들이 소비자와 농부의 권리, 요리의 무결성 및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 제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GMO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농부들이 직면한 균주를 포함하여 식량 시스템 전반에 걸쳐 직면한 여러 위기에 대한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농부와 시민이 씨앗과 식량의 출처를 선택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제안은 그 권리를 박탈합니다.” by 슬로푸드 사무총장 마르타 메사

© Akshay Chauhan on Unsplash



1 GMO 식품 반대 시위 현장

2 정직한 요리를 원하는 요리사의 모습(Louis Hansel)

3 GMos-visual: GMO 식품이 사회에 끼치는 단계별 설명 이미지



SLOW FISH

‘슬로피시 2025’ 안내 5월 8일부터 11일까지, 바다와 지속 가능한 어업의 위대한 축제 열려

‘슬로피시’ 국제 페스티벌은 2004년에 시작하여 2005년부터 매 홀수 해에 행사를 진행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다. 이번 주제는 특별한 주제가 아니라 그간의 계획된 약속과 다른 지역의 슬로피시 계획을 통해 전반적으로 되짚어볼 계획이다. 이번에도 바다와, 바다에 관심이 있는 많은 문제와 주제들을 선정했다고 한다. 국제슬로푸드협의의 큰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슬로피시 2025’ 자료에서 몇 가지 안내 사항을 가져왔다.

정리 신민건(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담당) 사진 Unsplash



01 ‘슬로피시’의 주인공

‘슬로피시(Slow Fish)’의 다양한 주제는 바다와 함께한 모습의 주인공들로 만들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직업상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한 방안에 대해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수공예 어부와 통합 양식업자들이 있다. 그중에는 슬로푸드 프레시디아 생산자들이 많고, 지역 슬로푸드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도 많다. 전망은 흐릿하고, 직면해야 할 역경도 많지만, 우리는 어부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싶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싶다. 또한 이러한 직업이 젊은 세대에게 어떤 매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 요리사들은 항상 웹에서 식탁까지 지속 가능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다. 다른 종 대신 특정 종의 소비를 장려하고, 소비하기 가장 어려운데다 부당하게도 덜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종조차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 캠페인의 홍보대사가 되었다.

우리 소비자들은 무역 정책을 형성하는 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종종 잊어버린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실천할수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성인 소비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슬로피시에서는 어린이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특별한 활동이 생겨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창할 것이다.

02 맛워크숍

슬로피시는 언제나 강렬한 미식 정신을 지닌 행사였다. 반면, 가이드 시음은 점시에 담긴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하고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슬로푸드 프레시디아를 맛보는 것은 많은 수생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더 나은 방법으로, 해안 생태계에 관해 이야기하여 바다와 해안, 그리고 그 반대 상황 사이의 연결과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 파란 게나 메기를 먹으면서 우리는 침입종 문제와 그 해결책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어패류 섭취를 환경, 맛, 건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소비 대안으로 자주 제안해 왔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여러 지역의 통합 양식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는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우리는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수년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왔다. 미세 플라스틱부터 환경 오염, 고갈된 어류 자원부터 기후위기까지. 이번 생일을 맞아 우리는 바다의 광대한 아름다움과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모든 선물에 대해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주제가 너무나 많다.

바다는 우리의 생명선이다. 우리가 숨 쉬는 산소의 50%를 생산하고,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격리하며, 기후를 조절하며,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바다에는 전체 생물 종의 80%가 서식하지만, 그중 지도에 표시되고 알려진 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몇 가지 데이터만으로도 수생 생태계가 우리의 존재에 얼마나 기본적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슬로피시 축제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점을 더욱 중요하게 기억하자. ‘슬로피시 2025’는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노바의 포르토 안티코에서 개최된다.

※ ‘슬로피시 2025’에 대해 더 궁금한 사랑이자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02-737-1665)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



‘슬로피시 2025’를 알리는 포스터 이미지

커피 한 잔의 진실, 슬로푸드 정신으로 다시 쓰는 커피 이야기

누구나 하루의 시작을 커피 한 잔으로 연다. 커피는 바쁜 일상에서 휴식이 되고, 관계의 시작이 되며, 때로는 집중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커피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일상이다. 하지만, 이 커피 한 잔을 마시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글 최정현(슬로푸드커피연합 준비위원장) 사진 Unsplash

재배지에서 잘 익은 커피 원두 한 다발

우리가 외면한 커피 재배의 그늘

오늘날 커피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 무역 중 하나로,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주력 산업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환경적·건강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농약과 중금속 문제다.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이 고급 아라비카(Arabica) 품종은 병충해에 취약하지만, 품질이 우수하여 가격이 높다. 비교적 중소 규모 농가들은 전통적인 그늘재배(Shade-Grown), 천연 비료 사용, 섬세한 작업 등 친환경적 방법으로 커피 열매 하나하나를 정성으로 재배한다. 이로써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생산한다. 따라서 재배 시 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문제에 비교적 안정성이 있다. 하지만 대규모로 운영되는 저가 커피는 비용 절감과 높은 생산량을 위해 환경을 외면한다. 저품질 값싼 커피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어떤 농장에서는 비행기나 드론으로 토양에 영향을 크게 받는 작물 살충제 및 살균제를 다량 살포하는 등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커피 농장 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안타깝게도 많은 생산자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살충제와 살균제를 다량 살포한다. 이러한 농약이 커피콩에 그대로 남아 인체 유해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커피를 재배할 때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Insecticides) 중에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가 있다. 이는 해충의 신경계를 마비시킨다. 인체에는 매우 위험한 신경독성 물질이다. 또한 꿀벌에 치명적이고 생태계 교란의 위험이 큰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와 같은 살충제도 사용한다.

곰팡이성 질병(녹병, 흰가루병, 탄저병 등)을 방지하는 살균제 만코제브(Mancozeb)는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손상 및 암 유발 가능성이 높고, 광범위한 곰팡이 억제제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은 환경에 매우 위협적이다. 카드뮴, 납, 수은 같은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커피콩은 필연적으로 그 물질을 흡수하며, 로스팅이나 추출 과정에서 일부가 남아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기 쉽고, 장기적으로는 신경계 손상이나 발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검역’이라는 안심, 그리고 그 이면의 한계

한국은 비교적 까다로운 농산물 수입 검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 수입하는 모든 농산물에 강력한 PLS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허용된 농약 외에는 모두 불허(0.01ppm 이하만 인정)’하는 방식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도다. 기존에는 일부 주요 농산물에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해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어도 규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 농산물·전 농약 성분을 대상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한 제도가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커피 생두 역시 일정 샘플을 추출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시행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다.

그러나 PLS는 농약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제도이지만, 구조적 한계와 실무적 현실이 존재한다. PLS는 무작위 샘플링 방식에 의존한다. 즉, 전량을 검사하지 않으며, 같은 무더기에서 추출된 일부 샘플만으로 전체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게다가 최초 수입 시 검역을 통과한 이후에는 반복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형 수입사에는 효율적이지만, 소비자에게는 맹점이 된다.

PLS는 “기준이 있는 농약만 허용하자”는 강력한 안전장치다. 하지만 안전한 커피를 위한 근본적인 해답은 단순히 검역 제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부터 투명하고 정직한 유통을 거쳐, 책임 있는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슬로푸드 운동, 커피에 말을 걸다

1986년 이탈리아 브라에서 시작된 슬로푸드 운동은, 패스트푸드 중심의 산업화한 식문화에 반기를 들며 출발했다. 그들이 내세운 가치는 단순하다.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Good, Clean, Fair) 음식이어야 한다.”

이 철학은 음식뿐 아니라 농업, 환경, 지역사회, 윤리적 소비 등 삶의 전반에 걸친 기준이 되었다. 슬로푸드커피연합은 이 정신을 커피 산업에 적용하고자 한다. 커피 또한 하나의 농산물이자 문화이기 때문이다. 슬로커피연합에서는 더 깊이 있고 신뢰도 높은 커피 선별시스템인 PGS 시스템을 도입했다. PGS 시스템(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은 소규모 커피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Good, Clean, Fair)’ 커피를 공동체와 소비자가 함께 보증하는 인증 방식이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 주도의 제도적 인증(예: 유기농 인증 등)과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 커뮤니티,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신뢰 기반의 인증 시스템’이다. 슬로푸드커피연합의 PGS(참여적 보증 시스템)는 생산자와 소비자, 바이어,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의 신뢰 시스템이다. 제삼자 기관의 형식적 인증이 아니라 현장성과 투명성을 중시한 ‘보증 중심’ 모델이며, 각 지역의 농업 현실을 반영해 다양한 생태계에 유연하게 적용된다. 무엇보다 국제 인증 대비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소규모 생산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커피’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PGS를 통해 슬로푸드커피연합은 전 세계의 소규모 커피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진짜 좋은 커피”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커피 유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PGS는 단순히 라벨이 아니라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든 커피인가”를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커뮤니티 기반 보증이며, 슬로커피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생산자의 철학과 방식에 동참하는 한 사람으로 연결되는 의미이다.

슬로푸드커피연합은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 건강하고 공정한 커피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교육, 인증, 유통, 추출 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커피는 더 이상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과 윤리, 문화가 담긴 선택이다. 그 커피 한 잔이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작은 길이 되기를 바란다. ●

●●
농약의 대량 살포로 인해 커피콩에
잔류농약이 남을 수 있으며, 중금속
흡수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



PLS 제도

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허용된 농약 외에는 모두 불허
(0.01mg/kg 초과 시)



모든 농산물·모든
농약 성분에 적용

한계점

- 샘플 검사에 따른 한계
- 미등록 농약에 대한 사각지대
- 실질적 현장 대응력 부족
- 글로벌 공급망과의 불균형

PGS 시스템

Slow Food[®]
Coffee Coalition

참여적 보증 시스템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커피를 식별하기 위한



참여적
생산자·소비자·
바이어 등이 농장
점검에 참여



보증 중심
제3자 인증이
아닌 공동체
기반 시스템



지역성 존중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생태계에 적용



간접비용
최소화
국제 인증에 비해
저렴하고
소농에게 접근 가능



원칙에 동의한
생산자
참여 신청



현장 방문
및 점검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커피에
인증 표장
부여



원칙에 동의한
생산자
참여 신청



생산 및
기술 기준
수립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커피에
인증 표장
부여



노점상이 준비한 시장, 정겨운 분위기를 풍긴다.

© Mike Swigunski on Unsplash

책으로 읽는 슬로푸드 ①『계절을 먹다』 맛과 추억으로 나누는 음식

글 김용수(전북 고창지부, 고창백옥스 '꾼' 대표) 사진 Unsplash

“좀 먹어본 사람이 쓰는 70년 음식 이야기, 소박하고도 귀한 남도 추억의 사계절”

무엇을 먹으며 성장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얼마만큼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 계절에 따라서 먹거리가 많이 달랐던 우리의 삶에는 그만큼 풍요로운 이야기가 있다. 요즘은 습관처럼 맛집이라는 이름의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풍속도가 되었지만, 자신을

자신답게 지탱해주는 음식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람처럼 흩어져 허무할 뿐이다.

이혜숙의 『계절을 먹다』는 ‘먹다’라는 동사에 스며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흔적을 담담하게 추억하며 쓴 이야기다. 따뜻하게 와닿는 이야기다. 여기에 소개하는 음식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나는 그 음식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한다. 봄에 맛보는 고구마는

가을과 겨울에 맛보는 고구마가 아니다. ‘씨고구마’인 것이다. ‘씨’가 들어간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씨’가 없으면 모든 먹거리의 씨가 말라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씨’를 먹었던 기억을 말한다. ‘씨고구마’를 내어주던 친척 할아버지는 “말이야, 봄에 씨고구마는 아주 귀한 손님이 아니면 주는 것이 아니지”라며 고구마를 내놓으며 미안해하던 일을 기억한다.

“사람은 맛으로, 그리움으로 산다. 최고의 위로는 맛을 나누는 일이다. 어디선가 추임새가 들리는 것 같다. 알쭉, 살고 싶어진다.”(김미옥 칼럼니스트)

음식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 자주 어머니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칠게젓’에 서는 입덧 중에 시장 노점상에서 아주머니들이 밥반찬으로 칠게장을 맛나게 먹는 모습을 보고도 말도 못 붙이며 돌아서 울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모내기가 끝날 무렵 엄마는 확에 넣고 가차 없이 부수었다. 등을 깨면 불그레한 알이 보이기도 했다. 집 게발과 다른 다리들은 사정없이 딱딱 같았다. 마늘을 넣고 깨를 넣어 죽처럼 갈아 바로 먹었다. 잘 퍼진 보리밥에 비벼 먹는 칠게젓이었다.’ 칠게젓 만드는 모습과 맛나게 먹는 모습이 선명하게 펼쳐져 저절로 입맛을 다시게 한다.

한 쪽지, 한 쪽지 볼 때마다 때에 따라서 함께하던 음식 이야기와 70년간 혀를 맴돌던 기억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나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떤 먹거리와 이야기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쉽게 몇 가지가 튀어나왔다. 시골 태생인 나는 밤이 긴 겨울이면 잘 익은 김장 김치를 푹 끓인 후에 국수를 넣어 좀 더 끓여서 먹는 ‘털레기 국수’가 생각났다.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하지만, 예상외로 쉽게 먹을 수 없다.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남은 음식들을 넣어 만든 잡탕찌개가 맛있었다. 만두, 녹두전, 소고기 편육 등을 넣고 김치와 함께 끓이면 묘한 맛이 나곤 했기 때문에 참 좋아했었다. 여름철 동네의 맑은 냇가에서 헤엄을 치면서 던져놓은 어항에 잡힌 잡고기를 넣고 고추장과 풋고추만 넣어 만든 민물매운탕은 지금 생각해도 일품이다. 여기에 수제비를 넣으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책을 보다가 놀라고 숨이 막혔다.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 8할이다. 된장이 된장이 아니고 김치가 김치가 아닌 세상을 사는 탓이다. 알팍한 맛에 혀가 절었다고나 할까. 이 책은 슬프게도 우리 맛, 계절을 지탱해 온 시절의 외로운 방주다.”(박찬일 셰프)

음식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 근면 성실 그 이상으로 일한다. 그러나 그 음식이 이야기를 만들고 존재의 시간을 추억하게 한다면 단지 살기 위해 먹는 것, 맛을 위해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 끼의 식사를 하면서 가끔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생각해볼 일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음식이 나의 몸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누구의 손길을 거쳤는지, 햇볕과 비와 바람은 어떠했는지, 시장으로 넘겨져 장바구니에 들어오기까지는 어떤 여행을 했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옛일을 소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먹고 있는가?” ●



『계절을 먹다』 (이혜숙 지음, 글항아리 펴냄)



초도산 정상에서 본 초도 해안

초도의 막걸리 제조 집



초도 이장 김진수의 섬살이 이야기 할머니의 특시발과 하이볼

글·사진 김진수(시인,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본래 나의 주력(酒歷)은 옛집 골방 구석에서 두터운 솜이불을 뒤집어쓰고 시큼한 냄새를 풍기며 툭툭툭 귀 기울이게 하던 할머니표 막걸리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애당초 내 주량의 기준은 사발이나 바가지나 주전자, 말통 등으로 계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소주파이셨던 아버님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남자는 술을 잘 마셔야 출세한다는 지론을 펼치며 30도가 넘는 그 쓰고 독한 소주로 엄한 조기교육까지 시켜주신 덕분이었는지 나는 어느 술자리에서나 꼴뽕한 자세로 두주불사의 주량을 뽐냈고, 인제는 내가 소속된 한국작가회의 전국 문학인대회에서는 쟁쟁한 팔도의 주당들을 모두 제치고 酒王(주왕)의 반열까지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최초로 만취했던 기억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그때 우리 집은 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변소도 꼬르르 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집에 가보니 할머니가 특시발에 담긴 무엇을 혼자 맛있게 먹고 있었다.

“할무니, 할무니! 혼자서 뭘 묵어? 나도 좀 줘?”

“안돼야! 아그들은 이런 거 묵으면 안돼야!”

“왜? 할무니 혼자 숨겨놓고 묵음시롱 왜 못 묵게해?”

“아따 그놈의 자식, 아나~ 묵고 싶으면 묵어봐라!”

그 특시발에 들어 있는 것은 걸러내지 않은 막걸리 전주같이 술 냄새가 확 풍겼는데 모양은 드물로 끓여낸 보리통죽처럼 뜨거웠으며 순가락으로 살짝 맛을 보니 달짝지근한 식혜와 흡사했다. 조금 뜨겁고 술냄새까지 확확 풍겼지만 달짝지근한 맛에 한 특시발을 후다닥 비우고 시작종이 울리는 학교로 뛰어갔다. 수업 중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졸음이 쏟아졌다.

“선생님 진수가 이상해요!”

짜깁이 큰소리로 고자질하는 통에 벌떡 자세를 일으키다가 픽 쓰러졌고 놀란 선생님께서 달려왔다.

“너 왜 이래? 어디가 아파?”

“모르겠어요. 어지럽고요. 속이 울렁거려요.”

“아이고 이거 큰일이구나. 얼른 책보 싸서 집에 가거라.”

나는 주섬주섬 책보를 싸서 어깨에 가로 메고 집에 와서

“할무니 나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 했더니

“이놈의 자식아! 그렇게 아그들은 그런 거 묵으면 안 된다고 했잖여, 얼른 책보 풀어놓고 찌어그 술도가지 옆에 가서 한숨 자거라” 하셨다.

1960년대 중반 내가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그때만 해도 용천 병으로 알려진 장질부사, 이질, 학질, 콜레라 등이 돌던 때라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감염이 되어 죽거나 고생하는 일이 많았다. 그

래서 학교에서는 보건을 정규과목으로까지 교육했지만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가난과 절악이 몸에 밴 할머니는 선뵈까지 버리기 아까워 막걸리와 누룩을 넣고 부뚜막에서 하룻밤 발효시켰다가 사카린 좀 타고 통죽처럼 끓여 드셨다. 그 주조법이 지금의 모주와 비슷한 형태가 아니었나 싶다. 그렇게 감염된 급성 식중독은 한숨 자고 나니 거뜬하게 나왔고 학교 마치고 우르르 달려온 친구들의 위문도 생글 생글한 얼굴로 맞았다.

지금도 웃음이 새어 나오는 그 추억의 한 페이지는 어느새 한 갑자를 돌아서 빛이 바래가지만 돌이켜보니 지금의 내 집 당호가 無酌定(무작정)에 이르기까지, 어쩔 파란만장하기도 하였을 내 酒歷은 혈기가 왕성해질 때쯤 두 되짜리 주전자 정도는 단숨에 꼭지나발을 불 정도의 주량을 자랑하기도 하였으나 차츰 사랑과 인생의 쓴맛을 알아 갈 무렵부터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쓰고 독한 소주로 뜨거운 가슴을 달래기 시작했다. 독한 소주도 투박한 막걸리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마시면 밤새는 줄 모르지만, 꿀 보기 싫은 사람과 부딪쳐야 하는 술잔은 영락없이 속 쓰리고 뒷골이 땅기는 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닐 테고... 아무튼 나의 하이볼이 아닌 하이볼의 주력(酒歷)은 막사이사이, 막콜라, 막소와 더불어 쏘콜라, 소사이터티, 쏘요, 소맥소롱과 소맥으로 재현된 다재다능한 짬뽕 칵테일 솜씨는 우리 할머니께서 수수, 서숙, 보리, 밀, 쌀 등으로 빚어내시던 오색 곡주의 숨은 내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을 것으로 이래 짐작이 된다.

풀섬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남쪽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이다. 밖으로는 거문도와 제주도밖에 없으니 절해고도라 할 수밖에 없지만 초도 사람들의 기상과 공동체 정신은 여느 고장 못지않으며 특히 거친 바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섬사람들의 애환을 달래 주던 술 문화는 어떤 권력도 막을 수가 없었으나 1909년 대한제국 말기에 탁지부 제3호로부터 시작된 주세법은 일제 강점기로 이어져 일제는 그 주세를 더욱 강화하여 나라를 빼앗긴 통한의 아픔을 술로 달래던 우리 조상들의 주머니까지 털어갔으며, 1935년 무렵에는 전체 국세의 30%를 차지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수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술을 멀리할 우리 민족이 아니었으니 집집이 밀주라는 전통 가양주가 그 때서운 단속의 눈길과 세금폭탄 속에서도 아랫목 구석진 자리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 빛으로 수탈의 아픔과 노동의 고단함을 이겨 나왔다.

그런 고난의 역사를 온몸으로 이겨내신 우리 할머니의 술 빛는 솜씨는 동네에서도 알아졌고 요즘 말로 장인의 경지에 오르기도 넘쳤을 정도로 정갈한 자세로 공을 들이고 술을 빚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정성은 내 유년의 기억 속에 생생히 각인되어 있다. 특히 온 집안에 풍기

던 누룩 뜨는 냄새와 구수한 그 고두밥 맛은 지금도 우리 할머니 하얀 옥양목 앞치마 폭에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돕는다고 누룩 방아를 가루로 만들었다가 크게 야단을 맞았던 추억 속에는 청주를 떠내고 거른 걸쭉한 농주(濃酒) 한 사발에 대취했던 날까지...

그런 나의 주력에 안주 땅기는 설거지통에 잡것들이 요즈음 내 고요한 술상에 자주 오르내리니 이 천불만불이 난 가슴을 쓸어내려 줄 독주가 말통 급으로 필요했는데 눈치 빠른 아들놈이 이번 설에 오면서 뒷병자리 아일랜드 위스키를 들고 와설라무네 하이볼 제조법이란 것까지 일러주고 갔다. 시킨 대로 양주 한잔에 레몬즙 몇 방울 탄산음료를 막걸리잔에 따르고 휘휘 저어서 마셔보니 이런, 요즈음 내 입맛을 버려놓은 그 꾸정물이다! 단술인지 쓴술인지 초등학교도 알 수 있는 오래된 폭탄주에 횡설수설 계몽령은 이 맛 저 맛 갈라치고 이 술 저 술이 섞이고 후안무치 궤변과 시금털털한 칵테일에 스파클한 게거품만 부글부글... 와, 진짜로 뜬금없는 특시발!

영락없는 그 맛이다. 딱 그 맛이다! 독한 하이볼이다. ●



밀주를 담은 특시발(Mesh)

내포지부 손정희 지부장을 소개합니다
“부부가 함께 농사지으며
생명과 교감하는 전업 농부입니다”

글 신민건(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홍보담당) 사진 손정희 회원 제공



자신이 키운 고구마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손정희 내포지부장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평화노래 농장에서 부부가 함께 전업으로 농사짓는 손정희 지부장입니다. 주 품목은 고구마, 감자, 단무지 무, 콩 등입니다. 텃밭에서 치유농업을 함께 운영하고 맨발걷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직 텃밭은 꾸미는 중입니다. 유기농업만이 아니라 그 품목을 농사짓는 과정을 담아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품목마다 고유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한답니다(‘평화로 감자’처럼). 단순한 수확이 아닌, 생명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입니다.

Q 슬로푸드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처음에는 어느 문화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되었고, 내포지부 초기에 함께 활동하며 시작했습니다. 슬로푸드는 농부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주기 때문에, 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소속감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충남여성농민들과 이탈리아에 테라마드레 행사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Q ‘지부활동상’과 ‘달팽이걸음상’을 받으셨는데, 소감 한마디해주세요.

A 내포지부 회원과 절기마다 모인다는거, 슬로푸드 농장 소풍 등 함께 배우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또 저희가 중요시하는 토종 씨앗 나눔행사를 봄·가을에 합니다. 행사 자체에 의미가 크고, 회원분들의 참여도가 좋기에 ‘지부활동상’ 수상인 것 같아요. ‘달팽이걸음상’은 슬로푸드 운동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슬로푸드 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신입회원을 많이 가입시킨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이탈리아 행사에 회원분들만 참여할 수 있었기에 받은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Q 올해 내포지부 활동 방향과 계획을 들려주세요.

A 올해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생태학과 관련된 슬로푸드 농장 발굴과 신청을 도전하려 합니다. 물론 절기 행사와 씨앗 나눔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들과 함께 슬로푸드 농가도 방문할 예정이며, 농생태학 세미나를 열어 책과 함께 공부하는 한 해를 만들려고 합니다.

Q 2025년에 새로 지부를 맡은 신입 지부장들에 대한 기대와 기존 지부장으로서 조언, 혹은 함께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A 지역 회원들과 재밌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각 지역에 맞는 음식과 행사를 진행하면 즐겁고 활발한 지부를 만들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지부 모임이나 행사에 음식 한 가지씩만 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 2024년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달팽이걸음상’ 수상 모습

2 ‘평화노래농장’ 간판



유정희 지부장

전주지부 유정희 지부장을 소개합니다 “슬로푸드는 우리 먹거리의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

글 신민건(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담당) 사진 유정희 회원 제공

운 어르신 50여 분께 매일 점심 무료 급식을 4년간 진행했습니다.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생활 교육 운동과 지역 내 먹거리 단체 간의 연대와 협업에 중심을 두고 함께해오고 있지요. 현재 식생활교육전북네트워크와 전주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 전북먹거리연대 공동대표 겸 교육위원장, 전주먹거리연대 상임대표 등을 맡고 있습니다.

Q 슬로푸드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예전부터 슬로푸드 운동을 잘 알고 있었어요. 김종덕 회장을 비롯한 다양한 분들과 인연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을 했는데, 제가 주거래 통장을 바꾸면서 자동이체를 변경하지 않아 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걸 최근에야 알게 되었답니다.(웃음) 지난해부터 지역 먹거리 활동 단체들이 모여 먹거리 시민(음식시민) 양성이 지역 먹거리 활동의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데 합의하고, 먹거리 시민 개념 정리와 활동 계획을 고민하던 중, 조리를 빼고서는 먹거리 시민이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조리하는 대한민국’ 캠페인을 진행 중인 슬로푸드와 꼭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슬로푸드 전주지부와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지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제가 중간 디딤돌이 되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지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대학 졸업 후 1994년부터 서울에서 종교시민 사회 활동가로 근무하다가, 20년 전 고향인 전주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요식업 등을 해오던 중 사찰음식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과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사)자연음식문화원’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음식문화원은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사람들만이 아닌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모든 자연과 생명이 함께 건강해져야 가능하다는 생명 평화 정신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먹거리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단순한 조리 기술을 교육하기보다는, 음식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땀 흘리는 농부와 조리사까지의 모든 노력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전통음식의 뛰어난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인에게 맞게 해석하는 온고지신의 정신을 주제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가로서 먹거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과 돌봄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관의 도움도 일절 받지 않고, 사무실 주변 여러

Q 지부장으로 올해 전주지부의 목표?

A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체기를 겪으면서 회원도 줄어들고 활동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슬로푸드의 가치와 정신을 공유하면서 살아있는 조직의 회원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듯합니다. 이에 지역 내 슬로푸드 회원을 늘리는 회원 확대 사업과 그들과 정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회원들과 할 수 있는 만큼의 소소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역 내 먹거리 관련 단체가 연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먹거리 시민 모임에 참여하여 ‘먹거리 시민의 완성’은 조리하는 시민이어야 한다’는 슬로푸드 운동의 핵심 가치를 녹여내어, 슬로푸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



자연음식문화원 로고

오늘도 우리는 슬로푸드

겨울의 끝추위를 건디어 따스함을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그간 움츠러들어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나누는 하루, 한 주,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 신민건(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 담당) 사진 각 지부 및 회원 제공



1 광주시부 총회 포스터 2 광주시부 총회 후 찍은 단체 사진 3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는 김준 박사

광주시부, 총회 개최

지난 3월 28일 슬로푸드 광주시부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슬로피시운동본부의 김준 박사와 『섬살이, 밥상』 『바다인문학』 북토크도 진행하였다. 북토크에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바다 생태계와 어족 자원 그리고 어촌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슬로푸드에서 빠질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각자 준비해서 참여한 회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고 훈훈한 총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총회를 통해 2025년 더욱 탄탄해지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광주시부가 되기를 응원한다.

2 내포지부, 씨앗 나눔 행사 열어

지난 3월 24일 내포지부에서 토종 씨앗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번 주제는 '조'다. 씨앗을 받아 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 씨앗으로 농사짓고 수확해서 씨를 받아 다시 씨앗 나눔을 하는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 행사를 통해 회원 간의 더욱 끈끈한 연대의 만남과 내포 지역의 토종 씨앗들에 대해 새롭게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더불어 제주의 '조' 이야기를 들으며 지역마다의 토종 종자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를 끝으로 떡과 목나물, 냉이무침, 파릇이 올라온 봄민들레 겉절이, 묵은지 등으로 다 함께 봄 음식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내포 토종 씨앗 품목



씨앗 나눔 모습

3 파주시부, 씨앗 나눔 행사 개최

바야흐로 봄이다. 봄은 씨앗의 새로운 성장의 시간이다. 지난 4월 파주시부에서는 올해 농사에 쓰일 토종 씨앗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각자가 작년에 재배한 작물의 씨앗을 가져와 올해 심을 씨앗을 나누었다. 각 씨앗 봉투에는 품종의 이름과 채종한 날짜를 적어 의미를 되새겼다. 씨앗은 자라서 식재료가 되고 식재료는 조리해 음식이 된다. 씨앗의 완성인 음식을 나누며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



1 파주 토종 씨앗 품목 2 행사 진행 모습

슬로푸드 경북 산불 화재 모금

경상북도 일대에 불어닥친 엄청난 산불재난으로
우리 슬로푸드회원분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는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습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집과 농작물을 모두 잃고 망연자실하고
계신 회원분들에게 마음을 모아 협조해 주신
슬로푸드회원님과 지부회원분들 고맙습니다.

슬로푸드 고양지부, 울릉지부, 화성지부,
강장원, 고옥희, 김미숙, 김애, 김종덕, 김종화,
김현숙, 이상행, 임현주, 이지형, 오연숙, 윤성희, 임미선,
이재현, 박경희, 최윤경, 서형숙, 장현례, 한해광

2025.05.09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슬로푸드회원특가

달팽이 매거진 연 구독 할인

연 구독 18만원에서 15만원으로
20% 할인되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현금가)

슬로푸드회원만 특별히!!
문의전화는 협회로
입금과 배송은 최영미 회원

슬로푸드 회원이되면 멋진세상이..

 02-737-1665

슬로푸드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의 자랑스런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님들이 내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 소멸위기의 종자 및 음식 유산을 지키는 맛의방주 발굴 및 등재
- 슬로푸드 운동의 경험을 나누는 "어머니인 땅" 워크숍
- 슬로푸드 운동 확산을 위한 국제슬로푸드축제 참가 및 개최
- 유전자조작식재료(GMO) 반대
- 지속가능한 어업을 지키는 슬로피시 운동
- 조리로 농업과 건강, 식문화를 지키는 "조리하는대한민국" 캠페인
- 콩 유전자원 보전과 자급 실현을 위한 "콩의나라대한민국" 캠페인
- 공장식 축산 육제품 대신, 적게 먹되 제대로 된 고기를 먹자는 "슬로미트" 운동
- 우리 차의 소중함을 느끼고 차생산자를 돕는 "차마시는 사회" 캠페인
- 지역의 음식 문화를 보전하고 육성하는 "슬로푸드집밥리더" 양성
- 음식 독서, 공동부엌, 토종씨앗 보전, 생산자 격려 등 지역별 지부 및 커뮤니티 육성

슬로푸드 회원이 되시면 위와 같은 일을 지원하는 외에도 160개국의 슬로푸드 회원들과의 연대 안에서 지구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슬로푸드 공동생산자가 되어 먹을거리의 기본인 농업, 땅, 가족농, 종자를 지킵니다. 또한 슬로푸드 지부나 커뮤니티와 함께 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벤트도 열면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2025년 4월 슬로푸드후원 (정기회비납부자)명단

가배울/전남강진, 푸른콩방주(대표김민수)/제주, (주)도담(대표이원영/슬로푸드친구들)/충북청주, (주)뜰과숲(대표권춘희) 서울강남, (주)물과산소(대표우병렬)경기김포, (주)쁘리마쥬(대표오진수/슬로푸드친구들)/경기안양, (주)생태미식연구소(대표남윤미)/경기여주, (주)선농생활(대표신동수)경기양평, (주)초정(대표정인숙)/전남곡성, John Kenneth Lee/전남장흥, NIINUMA CHIKA/서울마포, 강경갑/부산, 강경석/제주도, 강구열/경북예천, 강대욱/경남거창, 강덕순/광주광역시, 강미경/충남논산, 강민규/울산광역시, 강병규/전북남원, 강서영/제주, 강석찬/경기화성, 강성일/제주, 강수경/경남김해, 강순아/서울서초, 강순임/전남담양, 강양숙/제주, 강영수/대구광역시, 강영주/충남서천, 강은미/전북김제, 강장원/경기안양, 강주남/제주, 강지윤/전북고창, 강창건/제주, 강혜련/충남예산, 행복빛는떡시루(대표강혜진)/전북군산, 강희숙/경기파주, 강희숙/경북울릉, 강희진/충남예산, 경소정/경기남양주, 경지현/서울강남, 고미애/전북전주, 고성광/경기고양, 고양찬우물농장/경기고양, 고영/경기화성, 고영희/제주, 고영희/제주, 고옥희/경기파주, 고용준/제주, 고윤/서울마포, 고은정/제주, 고은정/전북남원,

고재섭/경북영양, 고지현/서울용산, 고현미/경기남양주, 고현준/제주, 고화순/경기남양주, 골드참치(최연)/서울 송파, 광경자/전남담양, 광미경/전남담양, 광민선/서울강남, 광선미/서울용산, 광순자/전남담양, 광여경/전남여수, 광주홍/경남김해, 구본일/경기파주, 구자운/충남예산, 국영주/강원홍천, 권미연/경기부천, 권승희/경기고양, 권연숙/경북울릉, 권오열/세종시, 권용덕/경기고양, 권용/서울은평, 권윤희/서울종로, 권은민/서울종로, 권인옥/서울강북, 권재영/미지정, 권찬중/경북울릉, 권필순/경북울릉, 권향숙/경기파주, 권혜경/충남아산, 권화조/경북울릉, 권효숙/서울서초, 규반(대표)/서울중구, 금경연/경기화성, 금대연/경기화성, 기여은/서울중랑, 기중서/제주, 김경숙/전남장흥, 김경숙/서울은평, 김경아/경기부천, 김경자/전남담양, 김경환/경기고양, 김경희/서울성동, 김경희/충남예산, 김경희/서울성북, 김경희/경기의정부, 김계숙/경북울릉, 김계향/전남담양, 김관숙/전북완주, 김관영/전북군산, 김관호/충남서산, 김광옥/광주광역시, 김귀임/광주광역시, 김금란/경기안산, 김금옥/경기남양주, 김기라/전남광주, 김기열/서울영등포, 김나경/경기여주, 김나영/서울중랑, 김남희/경북울릉, 김다솔/경기파주, 김대수/서울성북, 김덕일/경기평택, 김도원/제주, 김도윤/경북울릉, 김동관/전남고흥, 김동숙/경기파주, 김동우/경기도산, 김동자/경북울릉, 김동환/충남논산, 김말선/전남완도, 김명례/충남서산, 김명미/서울관악, 김명숙/경북울릉, 김명숙/경기용인, 김명숙/경북울릉, 김명애/경북울릉, 김명희/서울노원, 김명희/충남홍성, 김명희/경기양주, 김미경/광주광역시, 김미나/부산광역시, 김미득/경남창원, 김미라/전남완도, 김미숙/서울마포, 김미숙/서울강서, 김미연/충남청양, 김미영/경기파주, 김미자/전남순천, 김미진/광주광역시, 김미희/경남하동, 김민영/경기남양주, 김민정/경북울릉, 김민정/대구광역시, 김민호/경기광주, 김민희/제주시, 김병범/경기성남, 김병수/경북울릉, 김보람/서울노원, 김복남/경북울진, 김복희/광주광역시, 김부미/서울서초, 김상관/경기화성, 김상기/경기파주, 김상범/전남무안, 김상진/서울 동대문, 김상하/광주광역시, 김상희/경기파주, 김생기/서울강남, 김서원/경기파주, 김석순/경기고양, 김선란/전남순천, 김선영/충남예산, 김선유/서울동대문, 김선화/경북울릉, 김선희/전남무안, 김선희/부산광역시, 김성윤/경기남양주, 김성일/충북청주, 김성현/전남목포, 김성훈/경기평택, 김성희/서울동작, 김성희/전남화순, 김소연/경기평택, 김수남/전북고창, 김수미/경기의정부, 김수연/전북고창, 김수영/경기수원, 김수진/서울구로, 김수하/경남밀양, 김수현/경기화성, 김수희/전남영암, 김숙정/전북전주, 김숙희/전남담양, 김순주/경북울릉, 김순향/전남여수, 김순화/경북울릉, 김승준/서울용산, 김승환/경북울릉, 김아윤/슬로청춘, 김애/전남무안, 김여진/전북전주, 김연주/충남서산, 김연태/서울관악, 김영경/경기여주, 김영금/경기파주, 김영남/경북울릉, 김영란/충북제천, 김영란/전남신안, 김영림/서울관악, 김영림/서울동작, 김영미/서울성북, 김영수/전남화순, 김영숙/충남예산, 김영숙/전북고창, 김영순/경기파주, 김영식/세종, 김영신/전남완도, 김영신/제주도, 김영애/경기양주, 김영애/광주광역시, 김영애/경기수원, 김영옥/전남화순, 김영주/서울강남, 김영택/전북익산, 김영향/서울구로, 김영희/전남담양, 김예성/서울강남, 김옥분/충남홍성, 김옥분/경북울릉, 김옥선/서울송파, 김옥선/경북울릉, 김옥용/경북울릉, 김완섭/경북안동, 김용수/전북고창, 김용훈/전남담양, 김원봉/경기여주, 김원일/서울종로, 김원형/경기남양주, 김유나/서울용산, 김유신/서울은평, 김윤미/경기남양주, 김윤배/경북울릉, 김윤정/서울성북, 김윤주/경기양평, 김은성/전북고

창, 김은숙/서울중구, 김은숙/경기양주, 김은숙/광주광역시, 김은아/경북울릉, 김은영/경기의정부, 김은주/전남여수, 김은혜/경기양평, 김익현/경기의정부, 김인숙/서울서초, 김인순/전북전주, 김인자/경기파주, 김자현/서울관악, 김재균/경기의정부, 김재광/경기고양, 김재숙/광주광역시, 김재준/전남나주, 김정규/경기김포, 김정수/서울동작, 김정수/경기파주, 김정숙/경기수원, 김정숙/대전광역시, 김정아/제주, 김정애/경북울릉, 김정애/부산해운대, 김정열/제주, 김정옥/경북울릉, 김정자/경기양주, 김정화/경기의정부, 김정희/전남여수, 김정희/충북청주, 김종덕/서울동작, 김종애/충북충주, 김종철/제주, 김종화/강원철원, 김주덕/제주, 김주회/서울동대문, 김준/전남고흥, 김지영/서울 종로, 김지우/전남강진, 김진만/대전광역시, 김진수/전남여수, 김진옥/경기화성, 김진일/전남담양, 김진주/전북전주, 김진태/전남고흥, 김찬주/경기시흥, 김창균/전북전주, 김창숙/경북울릉, 김창중/광주광역시, 김채옥/서울동대문, 김채윤/전북전주, 김추자/전남여수, 김춘교/경기부천, 김춘성/경기하남, 김충구/충남천안, 김태분/경북울릉, 김태준/전남화순, 김태철/경기성남, 김태훈/전북전주, 김하경/서울동작, 김학현/경기파주, 김현곤/전북진안, 김현규/전북군산, 김현미/경북울릉, 김현석/서울시중구, 김현숙/경기김포, 김현숙/경기의정부, 김현순/서울은평, 김현옥/경북울릉, 김현옥/경기부천, 김형순/경기고양, 김형애/충남예산, 김혜경/전북남원, 김혜경/경남함양, 김혜란/서울종로, 김혜정/서울강서, 김홍기/충남예산, 김회은/충남홍성, 김효숙/전북완주, 김효재/서울광진, 김희명/전북군산, 김희섭/경기하남, 김희순/전북군산(정담순대), 김희영/ 김희재/부산광역시, 나경희/전북고창, 나상분/인천강화, 나예주발효/경남거창, 나혜리/경기남양주, 남은주/경기안성, 남정희/경북울릉, 남창우/전남순천, 남한권/경북울릉, 노국환/경기양평, 노미경/경기여주, 노민영/서울종로, 농업회사법인 농부생각(대표김동완)/충남아산, 농업회사법인울릉독도팜㈜, 농업회사법인절굿대, 느린세상영농조합법인(대표김갑남)/경북상주, 다정농원(대표심북남)/경북성주, 도덕현/전북고창, 라연화/경기고양, 라포르하레/제주, 라호채/전북무주, 류경옥/광주광역시, 류명주/광주광역시, 류정기/경기고양, 류춘자/경기고양, 마경희/경북울릉, 문명숙/경북울릉, 문봉준/전남장성, 문서정/경기수원, 문성수/경기파주, 문성희/전남구례, 문순자/경북울릉, 문오권/광주광역시, 문유숙/서울은평, 문재형/경기하남, 문지영/서울은평, 민경순/경기양주, 민경윤/경기용인, 민덕희/전남여수, 민병철/전남여수, 민진옥/서울동대문, 바른식습관연구소(대표김아람)/경기광명, 박경아/경기남양주, 박경희/경기파주, 박기호/경북울릉, 박난실/전남여수, 박남옥/전남여수, 박덕수/경북울릉, 박도희(박소연)/경기양평, 박동근/서울양천, 박동금/전북완주, 박동우/서울마포, 박래훈/경기화성, 박만희/광주광역시, 박미경/경남함양, 박미자/충남홍성, 박미현/경기고양, 박민숙/광주광역시, 박민제/경기양평, 박상미/서울종로, 박상일/전남해남, 박서필/캄보디아, 박석희/서울동작, 박선흠/전남여수, 박성미/전남여수, 박성숙/독일, 박성자/경기평택, 박성춘/전남신안, 박성혜/경기광주, 박세정/서울양천, 박소은/전남화순, 박소형/경기파주, 박순옥/전남담양, 박순덕/경북울릉, 박애경/경기양평, 박애련/서울강남, 박연주/경기파주, 박영란/경기광주, 박영미/서울종로, 박영애/강원홍천, 박영재/경기수원, 박영희/제주, 박영희/경북울릉, 박용수/경북울릉, 박이현/전남고흥, 박인숙/전남 담양, 박일두/전북전주, 박재원/서울강남, 박재현/미지정, 박정록/경기 남양주, 박정실/서울용산, 박정애/경북울릉, 박정희/서울은평, 박종숙/경기이천, 박종일/서울

강서, 박진숙/경기고양, 박진희/전북장수, 박찬영/서울관악, 박창규/전남담양, 박철민/경기용인, 박
춘희/전남여수, 박태식/전남담양, 박태원/경기양평, 박한주/경기양주, 박현순/경기여주, 박현진/서울
송파, 박형주/전북순창, 박혜숙/전남순천, 박홍균/전남신안, 박희옥/서울종로, 반기민/충북청주, 배
경연/경기파주, 배덕희/전북진안, 배연하/전남고흥, 배영혜/경기화성, 배옥례/광주광역시, 배재희/전
남영암, 배정숙/충남논산, 배형우/경기시흥, 백관실/경남진주, 백광빈/경기평택, 백말순등겨장/경북
성주, 백수환/광주광역시, 변경숙/서울송파, 변 산노을/경기양평, 변옥분/경북울릉, 변은숙/제주, 변
인화/서울영등포, 봉밀가평양냉면/서울강남, 부명미/경기파주, 부정숙/제주, 사랑의 손힐링리더스/
광주광역시, 서동현/경기고양, 서미경/서울구로, 서미향/서울관악, 서상덕/전남보성, 서수진/경북울
릉, 서은경/충남예산, 서종효/대구광역시, 서해용/충북청주, 서형숙/서울성북, 서희주/경기파주, 선
정우/경기성남, 설재훈/경기오산, 성길현/경기고양, 성명순/경기수원, 성선희/서울강남, 성세아/경
기시흥, 성수진/전남화순, 성용호/서울서초, 성점숙/전남함평, 성정민/경기성남, 성현주/경기육천,
소인경/경남통영, 소혜순/경기남양주, 손금숙/서울광진, 손덕식/전북정읍, 손미숙/서울서대문, 손영
숙/강원철원, 손영신/경북경산, 손영옥/서울서초, 손영자/전남화순, 손용원/경북울진, 손은아/전남담
양, 손정희/충남홍성, 손철수/서울성동, 손혜연/서울송파, 손화자/경북울릉, 송관용/서울서초, 송기
미/광주광역시, 송기희/광주광역시, 송동흙/서울서대문, 송명순/전남담양, 송미경/경북울릉, 송미경/
경기성남, 송미령/전북전주, 송미화/경북울릉, 송서윤/대전광역시, 송수연/경북안동, 송영희/경기양
평, 송장혁/전남담양, 송재향/전남여수, 송정숙/경기파주, 송정은/서울강서, 송주희/경기광주, 송중
근/제주, 송지은/경기양주, 송진선/부산직할시, 송철식/경남창원, 송태경/전북진안, 송혜민/경기남양
주, 신경남/전남고흥, 신동수/경기양평, 신동집/인천강화, 신동환/서울영등포, 신미경/전남여수 신미
경/경기양평, 신미정/전북순창, 신민건/경기남양주, 신상천/충남서천, 신서하/서울강남, 신수경/서울
동대문, 신영규/경남김해, 신용조/충남홍성, 신유리/서울강북, 신은희/경북대구, 신일현/경기포천,
신종암/전남여수, 신현숙/경기고양, 신형숙/전남담양, 신형식/경기남양주, 신효림/서울동작, 심상옥/
서울종로, 심온/경기구리, 심재경/전남완도, 심찬/서울강남, 안기영/경기양주, 안덕준/서울은평, 안
란/광주광역시, 안병권/전북김제, 안세희/경기남양주, 안소연/서울강남, 안수복/경북포항, 안승화/서
울강남, 안완배/경기양평, 안완식/경기수원, 안윤자/광주광역시, 안일국/서울은평, 안재명/전남담양,
안정순/경기고양, 안종운/서울서초, 안현숙/ 경기파주, 안혜경/전남순천, 양말년/경북울릉, 양문실/
제주, 양미순/경북예천, 양성오/경남창원, 양성은/전남화순, 양소영/전남여수, 양옥경/전북전주, 양
용진/제주, 양이선/제주, 양인자/경기광명, 양정미/경북울릉, 양정철/제주, 양종천/강원춘천, 양차심/
충남보령, 양향숙/전북완주, 양혜숙/제주, 양희은/경기의정부, 양희정/서울송파, 어프로젝트(대표천
재박)/경기파주, 언리밋테이블(대표김해영)/서울강서, 엄지선/ , 여수미미협동조합/전남여수, 엄희순/
대구광역시, 여애숙/경북울릉, 연현주/경북울릉, 오동엽/경북청도, 오미경/전북전주, 오석환/전북익
산, 오성표/전남고흥, 오수아/광주광역시, 오승희/전북완주, 오연숙/제주, 오영상/전남여수, 오용균/
서울송파, 오용준/서울송파, 오원희/인천강화, 오은서/서울강북, 오인숙/제주, 오정선/경기광주, 오
정하/전남담양, 오정희/전남여수, 오태숙/경북울릉, 우석영/경기고양, 우선화/경기파주, 우영선/미지

정, 우태영/경남거창, 우호창/경기가평, 원승현/강원영월, 유경/전북김제, 유경숙/서울노원, 유경순/서울강북, 유귀숙/서울동작, 유기상/전북고창, 유정길/경기고양, 유미호/서울구로, 유병숙/충남서산, 유선금/서울서대문구, 유성훈/전북부안, 유수현(카펜트리)슬로프렌즈 /경기남양주, 유승현/경기남양주, 유시현/경기남양주, 유신정/서울서초, 유영아/전남고흥, 유은의/경기김포, 유일순/충남서산, 유일화/경북울릉, 유재성/강원영월, 유정희/전북전주, 유정희(고천마실)/경북포항, 유종철/경기수원, 유창우(카펜트리)슬로프렌즈/경기남양주, 유채진/경기여주, 유춘영/전남담양, 유현주/서울서초, 유혜선/충북청주, 유홍림/프랑스, 유황순/경기양주, 육주희/서울관악, 윤가비채/광주광역시, 윤경림/서울관악, 윤경숙/충남서산, 윤광미/경기고양, 윤광희/경기광명, 윤대근/전남나주, 윤대식/전남강진, 윤매숙/경북울릉, 윤병구/전남함평, 윤상미/서울서대문, 윤석진/경기포천, 윤성희/충북청주, 윤순옥/전남강진, 윤신애/서울은평, 윤아영(레스토랑오와이)/서울강남, 윤영철/경북울릉, 윤유경/서울동작, 윤재영/서울강남, 윤정옥/충남논산, 윤정희/전북전주, 윤종민/전남여수, 윤진영/서울중랑, 윤하영/대전광역시, 이강백/경기고양, 이강식/경기화성, 이경민/전남담양, 이경숙/경기양주, 이경숙/경기파주, 이경애/경북울릉, 이경우/경기양평, 이경이/경기양평, 이경자/충남홍성, 이경태/경북울릉, 이광빈/제주, 이광영/경기파주, 이광진/경기용인, 이광진(일산애)/경기고양, 이귀임/전남영광, 이귀조/경북울릉, 이규현/전남담양, 이근왕/경남하동, 이근혜/서울종로, 이금선/경북울릉, 이기동/서울송파, 이길순/광주광역시, 이나금/경기파주, 이남숙/경기파주, 이대건/전북고창, 이덕주/경남하동, 이덕준/경북울릉, 이도경/경기파주, 이동선/경기용인, 이동일/경기용인, 이두열/경기김포, 이명/서울강남, 이명숙/대전광역시, 이명숙/경북울릉, 이명숙/서울서초, 이명주/경기김포, 이명희/서울용산, 이문봉/경기안양, 이미덕/강원횡성, 이미우/경기양주, 이미정/전북군산, 이민/경기안양, 이민영/경기양주, 이민일/경기파주, 이민형/경기고양, 이보은/서울구로, 이보향/서울도봉, 이보희/경기과천, 이빈파/서울성북, 이상관/경기광주, 이상미/전남담양, 이상배/경기화성, 이상숙/광주광역시, 이상원/경기남양주, 이상익/서울종로, 이상행/서울용산, 이상헌/경북울릉, 이상훈/경기평택, 이상희/제주, 이상희/경남통영, 이석영/경기수원, 이선진/인천광역시, 이성철/부산광역시, 이세훈/경기양평, 이수경/서울강동, 이수연/경기성남, 이수연/경기용인, 이수진/서울성북, 이숙연/서울동작, 이숙희/경남창원, 이순규/경기남양주, 이순득/경기용인, 이승길/전남완도, 이승숙/충남논산, 이승창/전남완도, 이승현/서울종로, 이승희/전남해남, 이연례/전남순천, 이연수/서울송파, 이영성/서울종로, 이영숙/충남예산, 이영숙/충북청주, 이영숙/경북울릉, 이영실/경북울릉, 이영아/전남담양, 이영희/경기수원, 이예숙/전남담양, 이옥녀/제주, 이옥순/서울양천, 이옥희/경북경주, 이용숙/경기수원, 이용원/경기여주, 이용이/전북군산, 이우숙/경기부천, 이원로/경기성남, 이원영/경기하남, 이원자/경기여주, 이윤선/제주, 이윤숙/광주광역시, 이윤철/강원영월, 이은경/광주광역시, 이은미/대구광역시, 이은선/서울강남, 이은미/대구광역시, 이은실/경북포항, 이은혜/충남공주, 이자영/경기양평, 이재덕/서울강남, 이재선/경기양주, 이재영/충남계룡, 이재용/경기화성, 이재현/충북보은, 이재훈/대구광역시, 이점순/전북전주, 이정석/이정숙/전북정읍, 이정숙/대전광역시, 이정아/제주, 이정아/경남하동, 이정아/광주광역시, 이정원/전남담양, 이정자/서울종로, 이정직/서울강남, 이정호/강원원주, 이정화/전남담양, 이종진/전북전주,

이주연/서울용산, 이준섭/제주, 이준호/전북고창, 이지순/경기양평, 이지영/제주, 이지현/경기남양주, 이지형/경북경산, 이진숙/전남화순, 이진영/전북전주, 이진형/경남진주, 이진희/서울동작, 이창희/경기양평, 이청하/경북봉화, 이춘자/경북울릉, 이현숙/충북청주, 이현영/전남여수, 이현정/서울은평, 이현정/경기여주, 이현종/경기고양, 이혜경/서울성동, 이혜정/경북포항, 이호진/경기김포, 이희운/전남장흥, 임국현/전북부안, 임명검/충남보령, 임미선/경기양평, 임미숙리디아/경기고양, 임상채/경기파주, 임서형/제주, 임선자/경북울릉, 임연주/전남화순, 임영수/경기고양, 임영혜/서울 구로, 임은정/서울강서, 임인숙/광주광역시, 임인환/강원평창, 임장옥/전북정읍, 임창덕/경기구리, 임태인/광주광역시, 임헌문/경북봉화, 임현/경기과천, 임혜주/제주, 임희연/광주광역시, 장경순/서울중구, 장경식/서울마포, 장금애/전남강진, 장나영/경기의정부, 장내순/전남장흥, 장대석/경기성남, 장명숙(신순규)/실미원, 장미향/경기포천, 장수찬/경기화성, 장승영/경기광주, 장승희/경기사흥, 장영기/ , 장영숙/경기파주, 장영주/서울은평, 장영춘/서울성북, 장유경/서울강남, 장유성/부산광역시, 장은숙/경남양산, 장주연/경기고양, 장중연/전남목포, 장지영/전남무안, 장진호/서울마포, 장하늬/서울마포, 장한/인천광역시, 장현남/서울동대문, 장현순/경기파주, 장현예/경기남양주, 장희상/전남화순, 전계운/전북고창, 전미경/경기남양주, 전민권/전남담양, 전민석/경기남양주, 전병덕/경기수원, 전병성/경기파주, 전선희/전남곡성, 전성희/경북안동, 전송자/경기파주, 전옥자/경기화성, 전은순/경기파주, 전인옥/경북구미, 전형광/충남공주, 전효원/대구광역시, 정갑순/경기광명, 정경희/경기이천, 정관스님/전남장성, 정규화/경남진주, 정금자/경기파주, 정금철/전북부안, 정남숙/전남담양, 정다운/경북울릉, 정대휘/경북울릉, 정명성/전북정읍, 정미선/서울서대문, 정미영/경기파주, 정병남/전남고흥, 정병수/광주광역시, 정봉희/서울용산, 정상신/이탈리아, 정상옥/충남홍성, 정상택/광주광역시, 정순덕/경기파주, 정순옥/경기양주, 정안숙/전남담양, 정연숙/경기수원, 정연주/경기양평, 정영숙/경기양평, 정영숙/충남보령, 정영호/전남무안, 정용호/경북울릉, 정운교/충북음성, 정유정/서울강서, 정은하/경기남양주, 정인숙/전남여수, 정일심/경기양주, 정점숙/경기남양주, 정정연/경북울릉, 정정하/서울종로, 정제민/충남예산, 정종숙/전북부안, 정진순/전북고창, 정진영/제주, 정진화/서울은평, 정태남/전남담양, 정해경/충남예산, 정현자/전남여수, 정현주/전남여수, 정현진/경북울진, 정현창/경기양평, 정혜경/경기고양, 정혜윤/인천광역시, 정호진(자르디미농)/경북구미, 정효미/전남여수, 정효화/전남화순, 정희정/전남무안, 제주로부터/제주시, 조경신/전북전주, 조남희/경기성남, 조성근/전북장수, 조수영/충남홍성, , 조수영/전남광양, 조연원/충남예산, 조영현/전남장흥, 조완석/경기용인, 조용란/경기파주, 조원실/경기고양, 조윤심/전북익산, 조은진/전북정읍, 조은희/경북경주, 조이스/경북울릉, 조정/경기고양, 조정한/경기화성, 조중기/강원철원, 조창범/제주, 조철/전북진안, 조태경/서울종로, 조향순/전남순천, 조혜원/서울서대문, 주권기/광주광역시, 주귀연/인천광역시, 주미란/서울도봉, (주)서스테이블/서울동작, (주)옥텟/서울강남, 주연섭/경북문경, 주영하/경기성남, 주은옥/전남여수, 주인옥/서울강동, 주형로/충안홍성, 주형미/경기부천, 주희진/광주광역시, 지윤진(피코서울)/서울사직, 지은주/서울서초, 진미령/경남창원, 진이린/경기고양, 진인희/미지정, 진희승/경기고양, 찐누룩발효공방/서울강서, 차나무뱅크/경기용인, 차명옥/전북전주, 차무길/경기성남, 차미경/광주광역시, 차시영/전남

장흥, 차정단/전북진안, 채점석/제주, 채지애/제주, 천정자/전남장흥, 천지연/전남순천, 천호균/경기
파주, 최경남/전북부안, 최근태/충북옥천, 최낙전/경기양평, 최돈익/서울강남, 최득수/충북단양, 최
말희/경북울릉, 최미경/경기안양, 최미자/서울노원, 최보영/전남영광, 최복민/전북전주, 최삼남/전북
부안, 최선미/광주광역시, 최성희/서울은평, 최송아/경기고양, 최숙자/전남고흥, 최승철/경기안양,
최식림/경남산청, 최양숙/경기파주, 최영미/서울성북, 최영숙/경남창원, 최영은/광주광역시, 최용범/
전남구례, 최윤경/서울중랑, 최윤수/경기여주, 최윤수/경기여주, 최윤희/서울영등포, 최은숙/경기김
포, 최은영/경기고양, 최재덕/경기여주, 최정민/경북경산, 최정분/경기파주, 최정현/경기성남, 최정
희/경기양주, 최종현/경기수원, 최종호/경기양평, 최주현/부산광역시, 최준표/경기수원, 최준호/서울
용산, 최지영/서울강남, 최철/경기연천, 최춘경/전북전주, 최춘화/전남담양, 최학순/충북청주, 최후
경/전남여수, 최희돈/경북울릉, 최희철/경기수원, 주민아/광주광역시, 추승민/서울관악, 태울팜솔루
션/경기수원, 템바이오/경기의왕, 하늘농가/슬로푸드친구들(고화순)/경기남양주, 하완기/경남거창,
하정애/경북울릉, 하진석/경기고양, 한갑수/서울노원, 한귀숙/경북울릉, 한기남/전남구례, 한대수/경
남거창, 한도연/전남담양, 한도현/경기성남, 한면숙/충남홍성, 한명구/서울중구, 한복려/서울종로,
한사랑마을교육공동체/경기포천, 한상준/경북예천, 한선이/전남담양, 한성천/경남하동, 한소중/전남
여수, 한소희/전남여수, 한열영농조합법인/슬로푸드친구들(대표김원봉)/경기여주, 한영수/경기양평,
한외자/경북울릉, 한우석/슬로청춘, 한은희/경기남양주, 한정심/전북군산, 한정현/경기광주, 한주희/
경기파주, 한창본/전남장흥, 한태림/전남순천, 한해광/전남여수, 햇살마당/경기파주, 허운/경남산청,
허경희/서울강남, 허기순/경기가평, 허선혜/경기파주, 허순연/경북울릉, 허정희/경기파주, 허태원/전
남여수, 허훈/경기포천, 현금지/경기남양주, 현길아/제주, 현은주/경기남양주, 현종영/서울강남, 현
준배/서울강서, 현혜인/경기수원, 홍경량/제주, 협동조합아우내공동체/ 홍광표/경기화성, 홍명숙/경
기양평, 홍미라/경기하남, 홍선희/서울성북, 홍수민/충남홍성, 홍숙기/전남화순, 홍순미/서울은평,
현인농원(대표홍승갑)/경기파주, 홍양현/전남나주, 홍여신/전남강진, 홍은화/경기수원, 홍정아/부산
광역시, 홍천기/서울영등포, 홍철표/경기양주, 홍혜영/대전광역시, 황기순/전남영양, 황길자/전북김
제, 황미경/전남강진, 황미화/경북울릉, 황보순자/경기여주, 황선영/경기안산, 황순임/충남서산, 황
정민/전남보성, 황종환/전남나주, 황진웅/충남공주, 황태연/전남담양, 황현화/전북군산, 황효숙/경북
울릉, 황효정/경북울릉, 효덕목장(대표이선애)/충남천안, (이상1,102명)